

# '파죽지세' 수입차...올 연간 판매량 20만대 돌파할듯

올 상반기 수입차업체가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면서 올해 연간 기준으로 20만대 판매를 처음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수입차 파죽지세로 한국 시장을 공략함에 따라 현대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최근 수입자동차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수입차 업체들은 올해 상반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1% 급증한 11만9832대를 팔았다. 상반기 누적 점유율은 16.57%로 반기 기준으로는 역대 가장 높았다.

통상 수입차의 경우 하반기에 더 많이 팔리는 것을 고려하면 올해 연말까지 사상 처음으로 연간 20만대를 훌쩍 넘길 전망이다.

국내에 수입차가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은 정부가 수입차 개방 정책을 펼친 1987년 1월부터다. 이후 28년 만인 2011년에 처음으로 연간 판매량 10만대를 돌파했고 다시 4년 만에 20만대를 돌파하게 되는 셈이다.

수입차들의 선전은 오는 9월 한층 강화된 배기가스 기준인 유로6 도입을 앞두고 구형 모델에 대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친 데다 일부 업체들의 신차 효과가 발휘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수입차 관계자는 "상반기 실적만 보면 올 연말까지 20만대 돌파도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갈수록 10만대를 돌파하는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상반기에만 11만9832대 팔려 전년동기비 27.1% 급증**  
**현대차는 점유율 갈수록 뒷걸음질...신차 출시 반격 테세**  
**기아차, 쏘렌토·카니발 인기몰이 전년비 11% 증가 선전**

반면 현대차의 경우 올 상반기 국내에서 33만6079대를 판매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오히려 줄었다. 이에 따라 국내 자동차시장에서 현대차의 상반기 점유율은 38.4%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점유율 41.3%를 기록했던 현대차는 올해 1월 38.1%로 떨어진 뒤 3월까지 38%대에 머

물다가 투싼 신차 효과 등에 힘입어 4월 41.3%로 반짝 상승했다. 그러나 5월 다시 39.1%를 기록한 뒤 6월에도 39.2%에 머물렀다. 현대차의 올해 시장 점유율은 목표는 41%로 현 추세라면 40% 달성도 불투명하다.

그나마 기아차가 쏘렌토, 카니발 등의

인기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10.9% 증가한 24만2582대를 판매하며 선전했다. 기아차의 상반기 점유율은 28.5%로 지난해 연간 점유율 28.0%보다 상승했다.

현대차는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잇단 신차 출시를 통해 반격을 꾀한다는 전략이다. 최근에는 1.7 디젤과 1.6 터보 등 3가지 모델을 추가한 쏘나타를 출시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수요층을 끌어들이 2년 연속 쏘나타 10만대 판매를 돌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여기에 9월에 신형 아반떼가 나오면 점유율은 다시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차종 다변화와 독특

한 이벤트, 브랜드 체험 등을 앞세워 지속적으로 판촉을 강화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점유율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완성차업체는 국내에서 수입차 인기가 치솟자 아예 수입차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을 쓰기도 한다.

한국GM의 세르지오 호사 사장은 최근 "국내 수입차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며 "올 하반기 임팔라 출시를 통해 국내 수입차 시장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르노삼성 역시 인기 모델 QM3를 스페인에서 전량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면서 '수입차'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통 스포츠카 메르세데스-AMG GT가 온다

**독일 다임러그룹**  
**3분기 국내 출시**  
**최고속도 310km/h**



독일 다임러그룹의 정통 스포츠카 메르세데스-AMG GT(사진)가 3분기 국내에 출시된다.

최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 따르면 GT는 메르세데스-벤츠의 고성능 차량 부문인 AMG가 SL에 이어 두 번째로 독자 개발한 2인용 스포츠카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스페셜 모델인 'AMG GT S'를 3분기 중 먼저 출시하고 내년 상반기에 일반 AMG GT를 선보일 예정이다. AMG GT S에는 8기통(V8) 4.0ℓ 바이터보 엔진이 장착된다. GT S의 최대출력은 510마력(일반 GT 모델은 462마력)이며,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에 도달하기까지 불과 3.8초(GT 모델 4.0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최고 속도는 시속 310km(GT 모델은 시속 304km)이다. 1540kg의 경량 구조를 갖춘 AMG GT S는 무게 중심을 노면 가까이 낮춘 덕분에 민첩한 핸들링과 고속 코너링이 가능하다. 연비는 유럽 기준으로 ℓ당 10.6km(GT 모델 10.7km/ℓ)로 동급 최고 수준이다.

AMG GT S의 국내 가격은 미정이다. 독일 판매가는 13만4천351유로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 소비자가 뽑은 상반기 최고 신차 쌍용차 '티볼리'



**SK엔카 온라인 설문**  
**2위는 기아 올뉴 카니발**  
**수입차는 랜드로버 선호**

소비자들은 올 상반기에 국내에서 출시된 신차 중 국산은 쌍용차 티볼리(사진), 수입차는 랜드로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중고차 매매 전문기업 SK C&

이엔카가 성인남녀 345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2.3%가 지난 1월 출시된 쌍용차의 소형 SUV 티볼리를 '최고의 모델'로 꼽았다. 2위는 기아차의 올

뉴 카니발 리무진 7인승(31.3%)이 차지했고 이어 현대차의 올 뉴 투싼(15.1%), 르노삼성의 SM5 노바(9.6%), 한국GM의 크루즈 2015년형(1.7%) 순이었다.

수입차에서도 SUV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랜드로버의 디스커버리 스포츠가 32.5%의 선호도로 1위를 기록했고 이어 재규어의 신형 F-타입(18.3%), 아우디의 뉴A1(14.5%), 폴스바겐의 신형 폴로(6.7%) 순이었다.

SK엔카직영 최현석 마케팅부장은 "올 상반기에 출시된 신차 중에서 SUV와 미니밴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렌터카 계약 순간 환불은 없다?

소비자원, 최근 환불거절 피해사례 110건 접수

경북 안동에서 사는 30대 여성 A씨는 지난 5월9~10일 이틀간 렌터카를 사용하기로 계약하고 대여료 20만원 중 10만원을 먼저 냈다. 이후 사정이 생긴 A씨는 사용예정일을 닷새 남겨두고 예약을 취소했지만 렌터카 업체는 계약금 환급을 거절했다.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 5월까지 접수된 총 427건의 렌터카 관련 피해사례 중 A씨처럼 예약금 환급 및 대여료 정산 거부로 당한 경우는 총 110건으로 전체의 25.8%를 차지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렌터카 사용 예정일로부터 24시간 전에 예약을 취소하면 예약금 전액을 환급해 주고, 렌터카를 사용하다가 계약을 취소할 때에도 남

은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90%를 소비자에게 돌려 줘야 한다. 그러나 계약금 환급 취소 사례의 68.2%에 해당하는 75건은 사용 예정일을 24시간 이상 남겨둔 상태에서 예약을 취소해도 환급을 거부하는 등 업체들이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급 거부 다음으로 많이 접수된 피해 사례는 렌터카를 몰던 중 사고가 났을 때 차량 파손이나 인명 피해 정도에 관계없이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이 밖에 원래 있던 흠집을 소비자에게 덮어씌워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례는 72건으로 전체 피해 사례의 16.9%를 차지했다. 또 소비자가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렌터카를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 손실비 등을 지나치게 요구한 경우는 61건(14.3%)으로, 이 중 19건은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은 렌터카 관련 피해의 40%는 여름철에 발생한다면서 계약을 할 때에는 환급 규정과 흠집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운전 방법에 익숙한 차량을 선택하라고 조언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자동차, 이것이 궁금해요

## 새차 비닐커버는 인도 즉시 제거해야 부식 방지

Q) 새 차를 구매했는데 비닐커버를 언제 제거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새 차 구매 뒤 차량을 인도받은 후에는 부착된 비닐커버를 바로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 차 내부에 얼룩이 묻지 않도록 하거나, 차를 아끼

는 마음으로 신차 출고시 씌워진 비닐커버를 오래도록 부착하고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습기로 인한 부식이나 악취가 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차의 수명을 단축합니다.

<기아차 광주서비스 센터 제공>

**광주일보**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개업·성업 안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블르메플라워샵**  
동구 공동 67번지 (예술의거리 중앙초교담장앞)  
경조화환·동·서양화·꽃바구니·꽃다발  
대표 임미량 ☎062)653-3676

**광주천가꾸기협의회**  
동구 수기동 명성예식장 앞  
여성취미교실, 서양화, 수채화 무료  
초보자 환영  
☎011-602-2883

**(주)세원모터스**  
북구 두암동 농협삼거리 LPG충전소입구  
자동차정비, 타이어, 오일교환  
kb손해보험대리점  
대표 김경호 ☎062)513-0211

**이경숙 갤러리**  
동구 계림동 서방사거리 이마트옆  
친환경원목가구, 돌침대, 휴침대  
식탁, 화장대, 좌파, 돌소파전문매장  
대표 이경숙☎062)224-2880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광주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동·서양화 매매 및 무료감정  
고급표구 제작판매  
대표 박종환 ☎062)232-4784

**일등모바일**  
동구 금남로2가7-4  
(구)동구청 1층  
핸드폰·악세사리 도매 전문점  
☎010-4655-9689

**송하한정식**  
동구 금남로2가10번지  
청국장, 가마솥육개장  
한정식, 백반전문  
062)225-9278

**서울표구점**  
북구 중흥동 269-14  
평화맨션 버스승강장 건너편  
동양화 매매, 각종표구전문  
☎010-3633-2790, 267-7979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당옆길)  
시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062)224-7687, 010-2611-7687

**놀부부대찌개문화전당점**  
동구 광산동 56-1 (번지유리상실원)  
부대찌개, 찰판구이  
점장 최은진 ☎062)222-9290

**석당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초대화랑**  
동구 공동 54-2 (중앙로 196번길 15-16)  
예술의거리 중앙초교사거리에서  
카톨릭센터쪽 30M 이전 확장개업  
대표 임태백 ☎010-2681-3113

**토산철학원**  
북구 두암동 에덴산부인과 정문옆  
작명, 개명, 시주, 신수  
궁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  
대표 이태연 ☎010-4106-5055

**똥이레**  
동구 대의동 10-1  
바다장어, 꾸꾸미, 봉장어, 사브사브,  
돌판볶음, 소금구이, 양념구이, 계절떡국  
대표 윤영희 ☎062)234-7949

**토담**  
광산구 비아소방서와 중흥파크사이  
병어조림, 갈치조림, 아구찜, 홍어찜  
회무침 전문(계절별)  
대표 김광수 ☎062)954-1333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 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

**고전방**  
동구 공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

**다나베옴즈**  
동구 남동 169-4 (충장로 171구민속촌 옆)  
호남 최고 맞춤 정장  
결혼 예복전문  
대표 김도경 ☎062)224-4262

**천수사백마장군**  
북구 중흥동 800-28 동부교육청 일방로  
인생상담, 병점, 시주, 궁합, 부적  
영으로 봅니다  
대표 허길배☎010-2828-2008

**미락 식당**  
동구 계림동 서방사거리 금호e마트 정문옆  
한반장정갈, 꽃게무침, 갈치조림, 홍어조림  
조기매운탕, 각종 생선구이 전문점  
대표 김지수 ☎062)515-6464

**오리백년두암직영점**  
북구 두암동 에덴병원 건너편  
오리한방, 백숙, 오리삼고기, 주물럭,  
오리뚫탕, 오리 장어탕  
☎062)401-5253